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관한 연구

-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Research Trends Litera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 란 주(Lan-Ju Lee)*

변 자 영(Ja-Young Byoun)**

목 차

- | | |
|----------------------|-----------|
| 1. 서론 | 2.1 양적 연구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인용연구 |
|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 2.3 질적 연구 |
| 2.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 | 3.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 9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10편의 국내 연구들을 선정하여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조사·분석한다. 분석결과 정보학 분야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등이 많이 사용된다. 주 연구자는 교수 그룹이며 학제간의 연구 및 여러 계층의 공동연구가 부족하다.

연구결과 기존의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와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헌정보학 전문가를 위한 연구기반 지식의 개발과 문헌정보학의 연구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키워드: 연구동향,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인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the consideration to possible futur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cal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In order to do that, it reviews 10 research papers that are associated with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cal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have been published since 1990 in Korea. These 10 papers are divided by three groups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relatively new and various research methods as well as traditional ones should be provid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addition, the research-based knowledge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als and research method standards for them should be developed.

*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문헌정보전공 부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접수일자 2000년 12월 1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헌정보학은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 및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 분야이다. 그리고 이 문헌정보학 연구란 모든 학문분야에서 조사·관찰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 발전시키는 과정인 연구가 문헌정보학에 적용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란 문헌정보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개발,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며 연구의 속성과 다양한 기법들의 이해가 없이는 참다운 문헌정보학의 연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조찬식 1999). 그러나 문헌정보학은 50년대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고, 70년대 눈부신 발전, 80년대 정보학의 출현 그리고 90년대에 그 학문적 자리 매김이 더욱 굳건해 짐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학문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실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오랫동안 불려온 정보사회라는 용어가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로 이어지면서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 혹은 정보센터의 정보전문가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문제의 매우 특수 상황에서 해결한 방법

들의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다소 비과학적이라는 결점을 보이고 있기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과 새로운 방법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지난 1996년에 개최된 한 도서관 연구 세미나에서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문가를 위한 연구 기반 지식의 개발을 촉진하고, 둘째, 학제간의 시각과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개발하고, 셋째, 실무전문가와 교육자에 의한 공동연구의 조장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발표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질문들로 문헌정보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연구기준이 있는지?,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인지?, 정보연구의 출현으로 연구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다. 그 외에도 문헌정보학의 학제간의 관련된 이슈와 이론과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Powell 1999, 재인용).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주로 한정된 시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방법론별로 분석하거나 (Feehan, Gragg, and Havener 1987; Kim 1996; Peritz 1981; Powell 1995), 좀 더 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들로 구분된다(Callison 1997; Dimitroff 1995; Julien 1996). 한 주제에만 중점을 둔 연구로서, Callison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에 관련된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분석하고, Dimitroff는 특수도서관에 관한 문헌을, 그리고 Julien은 정보 요구와 사용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 두 그룹 외에 한 분야의 한 가지 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정보검색연구에서 질적인 방법론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Fidel 1993)와 연구방법론의 최근 경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양적/질적 방법론 모두를 깊이 있게 다룬 연구(Powell 1999)를 들 수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내는 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며 여러 연구들이 연구동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넓게는 국내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하여 좁게는 향상된 문헌정보학의 연구 및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료수집 방법은 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과 학회지의 논문, 기타 발표된 연구논문 중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과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논문 10편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한다. 선정된 논문들은 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에 따라서 세 범주로 나눈다: 1) 양적 연구, 2) 인용연구, 3) 질적 연구. 분석방법으로, 각 연구의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며 중요한 이슈들을 주로 재인용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지 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만을 선정하였으므로 국내 문헌정보학의 태동기부터 현대까지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충분히 다루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논문의 선정에 있어서도 제목과 주제만으

로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다른 논문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2.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되어왔으며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문헌정보학의 발전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90년대에는 연구방법론 분야가 더욱 더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해 조금씩 다양화를 시도해 가며 많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90년대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10편의 논문을 세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양적인 방법을 택한 연구 (문경민 1993; 정동열 1993; 김길자 1995; 조찬식 1999; 김지선 1997; 최희곤 1999), 인용분석 방법을 택한 연구 (정연경 1994; 정진식 1994; 서은경 1997), 그리고 질적 연구에 관한 논의(설문원, 차미경 1999)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1 양적 연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한 연구로는 문경민(1993), 정동열(1993), 김길자(1995), 조찬식(1999), 김지선(1997), 최희곤(1999)을 들 수 있다. 90년

대 초에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중 처음 출현한 것은 문경민(1993)의 연구이며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최근에도 많이 인용되고 이를 토대로 추후 많은 연구방법과 후속연구가 출현하였다. 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말 이래 199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다면적이고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문헌정보학의 연대별 추세 및 발전 방향을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분석 대상은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589편과 3개 학회지(도서관학,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303편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연구되는 기관, 이용자 등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각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체적인 연구의 수가 80년 이후 거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문헌정보학 연구는 80년 이후 새로운 발전기를 맞았다. 둘째, 연구자는 교수집단이 크게 편중되고 사서들의 연구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는 다양하게 분포되고 학위논문은 도서관/정보봉사 및 활동과 정보축적 및 검색에 관심을 보여 실무 지향적이고 학회지의 연구주제는 보다 이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연구방법별 경향은 학회지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학위논문에서는 주로 서베이 연구를 집중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서베이와 서지학적 방법이 2/3이상을 차지해 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료수집 방법은 학회지에서는 자료분석이, 학위논문에서는 질문지법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여섯째, 자료분석 방법의 경향은 통계를

이용하지 않은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이고 기술통계나 추리통계를 이용한 논문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대상자는 사서와 전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덟째, 관중별 연구는 실무 지향적으로 나타난 학위논문에서의 비율이 더 높고 그 중에서 대학도서관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연구에 있어서는 전문인 중에서 자연과학분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 분석한 논문의 분류체계는 Jarvelin & Vakkari(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기초로 하고 DDC19판과 20판과 기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형태상의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같은 해 정동열(1993)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개발을 위하여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자료수집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1970-1992), 한국정보관리학회(1984-1992), 그리고 서지학(1986-1991) 3편을 대상으로 총 388편에 대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 가설설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이론의 효율성을 각각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헌정보학의 연구추이는 문헌정보학 논문의 연대별 분포와 발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70년대 이후부터 논문발표가 활성화되기 시작, 1985년 이후 논문발

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1985년과 1989년 사이의 연구는 70년대 이후 연구의 42.3%를 차지한다. 연구자는 교수가 전체의 73.3%로 학회에서 논문발표는 교수그룹 중심이고 이는 실무와 이론의 단절성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자는 해석한다.

연구주제 분류는 Jarvelin & Vakkari (1990)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우리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연도별 주제동향과 연구주제분야와 연구자와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사서와 교수그룹이 분석서지학, 정보검색, 분류색인, 목록, 자동화 순으로 관심을 보이는 행태가 거의 일치함으로써 이론개발이나 실증적 분석보다는 실무적인 문제해결이나 응용에 높은 관심이 보여졌다. 또 문헌고찰이나 이론 및 사적에 그친 연구보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가설설정을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논문은 전체 6.2%에 불과하여 이론정립단계에 있어서 하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의 방법과 자료 분석에서도 사료, 질문, 기존자료의 분석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통계방법의 사용도 전체의 1/4 수준이므로 좀더 다양한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론의 효율성을 고찰하는 측면에서 Dubin이 제시한 네 가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적용할 만한 연구논문은 전체의 6.5%에 불과하여 이는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론의 개발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헌정보학의 이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적 문헌정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실무에 응용하기 위해선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길자(1995)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및 시대적 특징의 변화 및 문제점, 연구의 흐름 등의 경향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착상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연구동향에 수량적인 파악에 중점을 두고있다.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분류체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즉 그는 구분영(1988)에 의한 우리나라 27개 대학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 분석표를 분석하여 7개 상위주제 영역을 설정하였다. 하위주제 분야에 대해서는 DDC(20판)의 주요항목과 엄영애(1989)의 주제구분을 비교하여 하위주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최근 연구분야들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도 혹은 주제용어들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또 연구형태상의 분석체계는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들의 이론 가운데 비교적 연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나름대로 추출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1959년부터 1992까지 간행된 석사학위논문 490편과 박사학위논문 53편을 포함하여 총 543편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521편만을 분석하였다. 대상문헌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독립변인은 일차적으로 연대구분과 주제영역이며 다음으로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항목을 다시 연대별, 주제영역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치는 SAS를 이용한 빈도와 백분율이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95%의 신뢰수준으로 명명변인의 검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정보학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도서관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검색 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각 주제영역에 대한 연대별 분포를 보면 1959년-1968년대는 자료연구영역이, 1969-1978년대는 기초이론과 도서관경영 및 행정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했던 1979년 이후부터 정보학을 선두로 기초이론, 도서관활동, 도서관경영 및 행정영역 등의 연구량이 고른 분포를 보인다. 1989년 이후에는 정보학영역은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그 밖의 영역은 연구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목적에 있어서는 이론응용보다 이론형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다소 많았다. 이는 정동열의 연구와 아주 상이한 결론을 보인다. 넷째,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질문지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관찰법, 면담법, 내용분석법 등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문헌연구방법 등의 이용비율이 높으며, 사례연구 및 인용분석 등의 연구방법은 다소 적게 이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조찬식(1999)의 연구는 정동열(1993)의 후속연구를 연구동기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이해와 연구배경을 논의한 후 연구동향에 대한 수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521편)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정

동열(1993)의 연구와 다른 점은 서지학회지를 문헌정보학의 영역 내에서 주제와 방법이 유사하다고 연구자가 단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분석대상은 연도별 연구논문 수의 추이, 연도별 연구자의 분포, 연도별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에 관련된 연구방법별 동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문헌정보학의 연구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었으나 내용 면에서 실무진의 연구보다 교수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둘째, 정보학의 영향에 따라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설계, 서베이연구 등이 자주 이용되었다. 넷째, 이러한 상기의 변화들과 동시에 계량정보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통계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이 점점 증가하여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첫째, 문헌정보학의 연구는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에서 문제해결과 이론의 현장 적용에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별 동향을 고찰한 결과 학문이 심화될수록 좀더 폭넓은 학제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균형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내용과 적용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좀더 다양한 연구방법이 다양한 연구주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타 논문과 비교하여 볼 때 변인 선정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주제 분류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요약 및 토론에서 정동열(1993)의 논문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언급하였다. 연구의 양적 증가는 기존연구(정동열 1993)와 다를 게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구자도 사서보다는 교수그룹이 더 많은 것은 동일하였다. 또한 분류색인이나 분석서지학이 높은 연구주제였지만 점차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가 증가하고 자료수집방법에선 인용문헌 조사가 증가하며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나 통계분야가 점점 일반화되어 가는 것 등을 비교하여 결론짓고 있다.

김지선의 연구(1997)는 교과과정의 실증적 비교연구와 교과과정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시대에 따른 문헌정보학 분야의 변화와 문헌정보학의 발전동향을 제시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통해 선행조사를 한 후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요람에서 교과과정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957년부터 1995년까지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31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1978년도를 기준으로 7개(경북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효성여대)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나타난 교과목 명칭을 위주로 분석한 것이며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기초영역에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이나 매스미디어와 사회, 기록 보존학 등이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영역에서 도서관정책론, 재정 및 인사관리 교과목, 전자도서관, 또, 자료영역에서 장서구성론, 자료선택론, 서지정보에 대한 교과목, 특정 주제분야의 의학자료, 법률자료, 화학자료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결론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끝맺음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정보학의 발전과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띤 단행본에 관한 내용분석을 이용한 분석적 통계연구는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적한 최희곤(1999)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단행본 저작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우리 학문분야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 혹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저조한 주제, 주제의 편중과 분포 등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규명해 낼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1997년까지 출판된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를 SPSS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단행본 저작의 전체적인 증가량, 단행본의 주제, 연구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자별, 주제별, 대학별, 연도별 생산성 분석에 대해서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단행본 저작과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나타났다. 첫째, 1957년부터 1997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 단행본 종수는 767종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1957년부터 1997년까지 가장 많은 단행본을 출판한 다 저자군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3.7%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보인다. 셋째, 연도별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문의 발전상 건강한 사이클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넷째, 문헌정보학 단행본 출판그룹은 주로 교수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분야는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경영, 참고봉사, 전문직에

관련된 주제로, 80년대 이후로 증가하는 주제는 정보검색, 자동화, 정보미디어, 이용자조사, 감소하는 경향은 도서관사, 분류, 목록, 서지학이 포함된다. 여섯째, 주제분야별 다 저자로 독서 지도에서 두 저자가 각각 2편씩, 정보검색에서 역시 두 저자가 각각 5편씩, 정보미디어에서 두 저자가 3편과 1편, 도서관경영에서 두 저자가 5편과 3편을 간행하였다. 일곱째, 연도별 생산성 분석은 1995-1996년(118편)에 아주 절정을 이루었고 한국 문헌정보학의 성장과정을 단행본의 생산성과 대비시켜 태동기(1940년대) 도입기(1950년대) 성장기(1960년대) 중흥기(1970년대) 전환기(1980년대) 정착기(1990년대)의 6단계로 정의 내렸다.

2.2 인용연구

인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정연경(1994), 정진식(1994) 그리고 서은경(1997)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연경(1994)은 주제문헌의 성격을 연구하고자 인용 분석을 통하여 전체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분야, 연구방법, 연구영역,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각각 문헌들의 차이점을 연구결과로 나타냈다.

여기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형태만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의 인용형태를 주로 잡지가 60-70%를 차지하고 기타(보고서, 학위논문, 필사본) 인용이 30-2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므로 주제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자료의 인용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주제 인용도에서는 문헌정

보학이 타 분야에 비해 문헌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제문헌의 개발이 잘 되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으나 다른 분야에 이론이나 방법론으로 시야를 돌려보지 않고 다른 주제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즉, 학제간의 연구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했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타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인용된 문헌의 수명이 짧은 편이지만 인용문헌의 언어에 있어서 영어의 선호도가 71-97%로 폭넓은 자료의 접근, 편중되지 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과학적인 분야에서의 학문적 성숙도를 알려주며 학술성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우리학문분야에선 많은 연구가 단독연구로 공동연구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이 또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연구연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동연구의 증가를 볼 수 있고 이는 교육자, 연구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학술성을 지적했다.

정진식(1994)의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이용한 문헌들을 인용분석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그는 인용된 문헌들을 형태별 및 생산국별로 분석하고 자료의 수명 반감기를 측정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문헌의 이용 가치 감소 현상을 규명하고 국내외의 문헌 의존도와 핵심자료 분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그가 1983년 '경제학 문헌의 반감기 연구'에 적용하였던 방법을 사용했다. 즉 조사 대상지로서 경제학 분야의 '경제학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행정학분야의 '행정학보'로 1993년 발행분을 대상으로 하여 3개 학회지 131편에 인용된 총

4188개의 인용문헌을 계량서지학적 측면에서 자료의 형태별, 생산국별(발행지별)로 구분하여 발행연도를 분석 처리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7편에서 715개의 인용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 문헌정보학회지의 인용문헌은 단행본이 전체 인용문헌의 절반 이상인 57.76%로 타 문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용된 단행본의 생산국별 분포는 국내잡지가 21.37%인데 비해 외국잡지 기사는 78.63%로 압도적이었으며 외국잡지 기사 중에서도 미국잡지 기사가 73.08%로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인용빈도는 외국논문 27.90%에 비해 국내논문이 72.10%로 더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보고서의 경우 92.30%의 외국기관의 보고서가 높은 인용빈도를 나타냈다. 반감기를 타학문 분야와 문헌정보학을 비교하였을 때 문헌정보학 문헌이 경제학이나 행정학에 비해 반감기가 세 배 정도 길게 나타나 우리학문 분야는 타 사회과학 학문 분야보다 문헌의 이용기간이 더욱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문의 이론정립과 발전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동향이라는 분석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은 타학문에 비하여 뒤쳐진다고 해석했다.

두 연구가 인용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상이한 점들은 국외문헌과 국내문헌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국외의 경우는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저널 논문을 많이 인용한 반면 국내는 단행본의 인용이 50 퍼센트를 넘고 있다. 이는 정진식(1994) 지적했듯이 학문의 이론정립과 발전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연구가 1995년 이전에 이

루어진 연구인만큼 최근 자료를 분석한다면 새로운 연구동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은경(1997)의 연구에서는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 정보학 연구의 타학문 주제 의존도, 그리고 정보학의 학제적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보학 분야의 주제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한국 정보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와 정보학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JASIS) 선택하였다. 또한 정보관리학회지가 창간된 1984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6년까지 13년 동안을 분석대상시기로 택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기간을 1984-1986, 1989-1991, 1994-1996 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총 정보관리학회지에 실린 130건의 논문과 JASIS (1984-1996)에 실린 528건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의하여 인용된 학술잡지(1101건, 4962건)들이 비교 분석되었다. 각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분류는 ISA (Information Science Abstrac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학분야의 주제 분류표 (7가지 주제 밑에 다시 평균적으로 10개의 소주제로 세분화 함)를 수정하여 7개의 큰 주제 밑에 3-5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인용문헌의 주제 의존도 및 핵심잡지 분석을 위해 연도별, 학회지별 인용잡지의 인용빈도 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학 분야의 학제적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잡지를 분석단위로 사용한 잡지동시인용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두 학회지가 주요 주제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

시스템 응용 분야인 반면 JASIS는 정보처리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또다른 차이점은 정보관리학회지가 JASIS보다 정보학과 도서관학 잡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동문헌분석 및 검색 그리고 그 응용' 분야를 주요 연구 관심사로 두고 연구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정보학 분야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지만 점점 다양한 주제를 이용하는 추세를 보아 정보학 연구 영역이 넓어져 감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컴퓨터 관련 정보학의 연구가 부각되고 있음을 예측했다.

2.3 질적 연구

문헌정보학의 연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로 설문원, 차미경(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듯이 그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과 유형, 적용근거, 영미 문헌정보학계의 질적 연구, 질적 고양을 위한 유의를 다루며 그간 문헌정보학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해 왔지만,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고 단지 방법론적인 다양화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차원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는 기존의 양적 접근에 치우쳐 있던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가 제안되었다: 1) 질적인 연구의 특성과 유형은 무엇인

며 문헌정보학의 적용근거는 무엇인가?; 2) 영미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질적인 연구를 어떻게 적용해 왔나?; 3) 질적 연구의 질적 고양을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4)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5)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위의 다섯 가지 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현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질적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은 인터뷰 내용이나 현장 관찰 내용으로 이루어져 대개는 매우 상세한 서술 방식으로 표현되고 연구결과보다는 연구과정을 중시하여 연구과정이 매우 유연하고 비구조적이라는 측면이다. 질적 방법의 유형에는 사례연구가 있고 사례연구는 서술적 사례연구, 해석적 사례연구, 평가적 사례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또 문화 기술법,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근거 이론, 담론 분석이 있다. 질적 방법을 적용하는 때는 데이터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결정론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형태연구에서 질적 방법이 유효하다. 개념의 성숙도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특성 현상이나 사건을 연구 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또 현재의 지식이나 이론이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때 혹은 해당학문의 주류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할 때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

설문원, 차미경 연구에서 영미 문헌정보학계의 질적 연구 도입과정으로 1990년 Mellon이 기존의 도서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적인 방법으로써의 질적 연구를 소개한 *Naturalist Inquiry for Library Science*라는 저서를 지적하였다. 같은 해 미국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최초의 국가단위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Smith(1990, 92)는 질적 연구가 도서관 봉사 of 한 중요한 부분인 "인간적 요소"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개념 또는 장서 또는 개인 기관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1993년 *Library Quarterly*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 *Library Trends*에서 편집자 Maylone은 질적 연구가 이론적 학문적, 그리고 방법론적 풍부함을 제공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질적 연구의 '질적 고양'을 위해서 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완결성, 타당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기법과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둘째, 연구자의 자질, 경험, 관점이 이 연구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셋째, 어떤 패러다임과 가정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또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모든 가능성 있는 변수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다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한편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성격과 과제에 대한 고찰에서 이 두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 논의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독특한 측면은 실천적 성격에 있다고 한다. 도서관을 실천 현장으로 한 전략적 연구 지향이고 또 이러한 실천 운동이 학문의 영역으로 환원될 때 문헌정보학의 토착화·한국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몇 가지 과제는 연구자 편견의 배제와 충분한

자료제시, 연구과정의 유연성과 철저한 조사과정의 확보, 체계적인 연구설계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헌정보학의 이론정립과 질적 연구 방법론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학술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문원과 차미경의 논문(1999)과 같이 심도 있게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신선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한편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연구로는 지난 30년 이상 정보검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법론상에 있다는 지적에서 인위적인 데이터, 작은 표본크기, 외부변인에 대한 통제실패,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 등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 연구(이명희 1994)를 들 수 있다.

2장에서 분석한 10편의 연구들을 연구방법, 자료수집대상과 년도, 그리고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연구방법은 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으로 6편에서 양적 분석, 3편에서 인용분석, 그리고 한편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료수집대상은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지를 주로 사용하고 단행본과 요람도 각각 한편씩 사용하였다. 자료수집대상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2년 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르게는 1950년부터 1997년까지 다루어졌다. 분석내용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의 분포,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연구영역 등을 다루고 있다.

〈표 1〉 선정된 연구들의 분석결과(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내용)

선정논문	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내용
문경민(1993)	양적 연구	· 석·박사학위 논문(589편)과 3개 학회지(303편) · 1950-1991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연구되는 기관, 이용자 등.
정동열(1993)	양적 연구	· 3개 학회지(388편) · 1970-1992: 1984-1992: 1986-1991	연구주제, 연구방법, 가설설정, 자료수집방법 등.
김길자(1995)	양적 연구	· 석·박사학위논문(521) · 1959-1992	연대별, 주제영역별,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
조찬식(1999)	양적 연구	· 2개 학회지(237편) · 1993-1997	연도별 연구논문 수, 연구자의 분포, 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등.
김지선(1997)	양적 연구	· 31개교 요람에서 교과과정 · 1957-1995	교과목 명칭
최희곤(1999)	양적 연구	· 단행본 767종 · 1957-1997	단행본의 증가량 주제, 연구대상자, 저자별, 주제별, 대학별, 연도별 생산성 분석.
정연경(1994)	인용연구	· 국외 선행 연구 · 1970-1993	형태, 주제, 수명, 언어, 공동연구.
정진식(1994)	인용연구	· 1개 학회지(27편, 715인용문헌) · 1993	형태, 생산국별, 발행년도 등.
서은경(1997)	인용연구	· 2개 학회지(JASIS, 528편, 4962 인용문헌; 정보관리학회지, 130편, 1101) · 1984-1996	연구영역, 타학문 주제 의존도 학제적 구조 및 변화.
설문원, 차미경(1999)	질적 연구	-	-

3. 결론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이론 개발과 전문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극히 중요한 활동이며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양적인 발전과 참다운 연구를 위하여 9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선정된 10편의 연구논문들은 그 연구방법에 따라서 양적 연구, 인용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로 나누어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그룹에서 문경민(1993)의 연구는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대별 추세 및 발전 방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정동열

(1993)은 3개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을 통계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문헌정보학을 위한 이론정립의 대안을 제공하고 자 하였고, 김길자(1995)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길자(1995)의 연구에서는 정동열(1993)의 연구결과와 달리 연구목적들이 이론형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다소 많았는데 이는 분석자료가 학회지논문이 아닌 학위논문에만 국한하였으므로 자료의 성격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본다. 조찬식(1999)의 연구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2개 학회지를 중심으로 연도별 연구논문 수의 추이, 연도별 연구자의 분포, 연도별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김지선(1997)은 1957년부터 1995년까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을 엿볼 수 있다. 최희곤(1999)은 지난 41년 간 발표된 단행본의 분석을 통해서 문헌정보학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주제의 편중과 분포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단행본 저작과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용분석을 통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분석자료가 외국 문헌 중심이어서 인용문헌의 언어에 있어서 영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용형태도 잡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정연경 1994). 정진식(1994)의 연구도 인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자료분석의 대상은 국내 학회지이며 앞서 정연경(1994)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용분석을 이용하여 같은 분야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다면 변화된 동향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

진다. 한편 서은경(1997)의 연구는 잡지동시인용기법을 사용하여 정보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국내와 국외의 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 주제의 연구방향을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문헌정보학의 다른 주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 그룹인 설문원, 차미경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문헌정보학에서 기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한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90년대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는 가운데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 서론에서 간략히 인용하였듯이 외국의 경우 연구방법론에 중점을 둔 여러 논문들과 도서 등이 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크게는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이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볼 수 있다.

첫째, 각 연구들의 분석 대상이 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의 공통점은 8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은 새로운 발전기를 맞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는 사서그룹 보다 교수그룹이 활발한 연구를 보이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등이 많이 사용되며 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의 선정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의 설정과 검증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자료해석 방법에선 통계적인 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이슈로 등장하는 정보화와 급격히 발달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보학 분야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 검색엔

진의 출현과 웹의 활성화 이후, 이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의 종류와 성격도 비교적 유사하다. 즉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의 분포, 연구대상자, 연구되는 기관,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연도별 생산성이 연구변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변인들의 수치적 분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고 양적인 연구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질적 접근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제간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이미 지적되었듯이 문헌정보학은 더욱이 학제간의 학문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인접 학문들과 또한 교육자, 연구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수치적인 접근과 함께 의미 있는 질적 접근과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 전 분야뿐만 아니라 한가지 주제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의 파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끝으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문헌정보학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헌정보학 전문가를 위한 연구기반 지식의 개발과 문헌정보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긴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누구이며 이러한 전문가는 어떻게 훈련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김지선(1997)의 교과과정 비교 분석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방법론 과목의 개설과 전문가를 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의 소개와 이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길자. 1995.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선. 1997.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분석』. 석사논문, 충남대학교.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 논문집』:

- 65-92.
- 엄영애. 1989. 도서관학 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대 30주년 기념학술 논문집』: 211-238.
- 이명희. 1994. 정보검색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 7: 231-246.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1993년도 3개학회 공동학술 대회 발표집
- 정연경. 1994. 주제문헌별 특성: 외국의 인용분석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49(3): 44-62.
- 정진식. 1994.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 연구: 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11(2): 31-48.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최희곤. 1999. 『한국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중앙대학교.
- Callison, D. 1997. Evolution of methods to measure student information us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 347-357.
- Dimitroff, A. 1995. Research for special librari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Special Libraries*, 86: 256-264.
- Feehan, P., Gragg, L., and Havenner, M.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 173-185.
- Fidel, R. 1993. Qualitative methods in information retrieval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5: 219-247.
- Julien, H. 1996.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 53-65.
- Kim, M. 1996. Research recor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37: 376-383.
- Mellon, C. 1990. *Naturalistic Inquiry for Library Science: Methods and Applications for Research, Evaluation and Teaching*. New York: Greenwood.
- Periz, B. 1980-81. The methods of library science research: Some results from a bibliographic survey. *Library Research*, 2: 251-268.
- Powell, R. 1999. Recent trends in research: A methodological essa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 91-119.
- _____. 1995. Research competence for Ph.D.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

mation Science, 36: 319-329.

Smith, K. 1990. Diversity and direction: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center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91-96.